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앞장

임실군, 근로환경 개선·노후농공단지 사업비 투입 등

임실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지원 사업을 전개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올 상반기에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집진시설과 작업장 냉방 및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4200만원을 지원,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

했다. 또한 노후 농공단지 1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9주의 가로등 교체 및 배수로 정비(약100m), 수목 제거 등 노후 농공단지 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체 중 경영에 어려운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1200만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하반기에도 신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2억원 한도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 3%를 보전해 주어 경쟁력 있는 선도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기업들이 임실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하도록 적극 돕겠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수동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장려상

'마을유래집·마을노래 가사집 만들기' 높은 평가

전북도가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구현을 위해 주최한 '제5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남원시 사매면 수동마을이 문화·복지 분야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이번 콘테스트는 4개분야(경관환경, 소득체험, 문화복지, 이

다운농촌캠페인)의 각 3개 팀을 비롯해 전라북도 시군 마을 리더와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남원시 수동마을은 노적봉 아래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로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일원인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체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유래집 만들기, 마을노래 가사집 만들기'를 주제로 다양한 마을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수동마을은 보존하고 있는 1,300년 된 은행나무를 비롯해 제곡(노산재, 환선루), 마을구전노래(수동가)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마을로,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마을구전 노래인 수동가를 부르는 퍼포먼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준무 남원시 농정과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그동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해 주민 스스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 화합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가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구현을 위해 주최한 '제5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남원시 사매면 수동마을이 문화·복지 분야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남원시,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남원시가 최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시내버스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목받고 있다.

자가 부담한다. 남원시는 지난 3월 버스공공와이파이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7월과 8월 시스템 구축과 시범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올해 우선 시내버스 20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와이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구축비용은 기간통신사업

자가 부담한다. 남원시는 지난 3월 버스공공와이파이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7월과 8월 시스템 구축과 시범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버스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최첨단시스템으로 통신사와 관계없이 이

용할 수 있으며, 남원시는 나머지 시내버스에도 내년도까지 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번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공요금은 국비와 사비 1대1 매칭펀드 방식이다.

한편, 남원시는 2013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과 공설시장, 관광지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전에 혼신의 힘 다하겠다"

노홍래 부군수 취임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의회, 언론, 지역 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순창, 소통하는 순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황숙주 군수님의 민선 7기 철학인 실시구시(實事求是) 철학을 뒷받침해 순창의 100년 미래 희망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노홍래 제25대 순창부군수가 9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 업무에 돌입했다.

노 부군수는 이날 간부회에 참석해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저를 필요로 하는 어느 현장이든 달려가서 민원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관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 부군수는 이어 "직원들의 화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써서 시행하는

소통하는 순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제25대 노홍래 순창부군수는 1979년 공직에 입문한 뒤 전주시 재무과장, 전통문화 과장, 전라북도 성과기획팀장, 규제개혁 추진단장, 체육정책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깔끔한 일처리로 많은 업무는 목표한 성과를 꼭 창출하는 타입으로 알려 졌다. 또 직원들과의 격 없는 소통으로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 아리

순창군 "7월 주민세 납부해야"

순창군은 최근 16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

군은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군세의 한 세목으로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의 납과 같아서 주민들이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어 이해를 돕고,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를 진행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편리한 방법이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8대 임실군의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신대용 의원·부의장에 김왕중 의원
운영위원장 장종민 의원·산건위원장 박영자 의원

제8대 임실군의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함께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제8대 임실군의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갈 의장에 3선의 신대용 의원, 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왕중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에 장종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자 의원을 각각 선출함으로써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한편,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임실군의의회 의원들은 임실호국원을 참배하고,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및 간부공무원, 의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제8대 임실군의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신대용 의장은 "군민의 가슴에 새로운 감동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성숙된 의정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



신대용 의원 김왕중 의원



장종민 의원 박영자 의원

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또, "제8대 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나아가기 위해 상생과 화합의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산림병해충 방제 나서

임실군이 10월 말까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9월 군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에게 아름다운 임실을 알리고,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군은 주요 관광지 진입로와 고속도로변, 국도변 등 산림병해충방제작업으로 수목 및 군민 생활에 피해를 유발하는 돌발해충의 출현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방제대상 주요병해충은 지난 2012년부터 확산되어 가로수 및 과실수에 피해를 준 갈색날개매미충 및 꽃매미 등이다.

전용방제차량을 이용한 지상방제로 집중 실시하게되며 군은 매년 꾸준한 방제작업으로 피해면적을 줄여나가고 있다. 다만, 노고수와 보호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귀중한 나무관리에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 6일 개장한 세심자연휴양림 약 90여ha를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발생되는 고사목 제거작업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박세민 축산산림과장은 "지역산림병해충 대책본부운영과 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하여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의 밀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